

敎協力委員會開催

인인 委員會을 選定하여 推進키로

1、宣敎協約의 具體的 敎會連盟) 總會에 協力要
인 兩敎會의 委員들을 選
定하여 推進하기로 하다.
우리 總會에서는 金性濟牧
師와 韓聖炫牧師, 그리고
朴壽吉總幹事가 망기로 하
다.

2、宣敎協約五周年記念
集會의 開催는 二〇〇二年
十月에 關西地方에서 하
기
로 하다.

3、二〇〇四年에 실시
케 될 WARC (世界改革
다.

敎會連盟) 總會에 協力要
請이 있었으며 其他 協力
事項은 實務委員會를 통해
進行하기로 하다.

4、各地区와 各敎會의
相互協力에 關한 件은 事
例들을 紹介하고 더 積極
的으로 協力하기로 하다.

5、宣敎協力委員會를 實
務省에게 一任하기로 하
다. 그 日字와 內容은 實

21세기 해외 한인 교회의 비전/Vision Statement

서문

북미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 한인 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하와이 대회 (주제:「백년을 돌아보고, 백년을 내다보며」, 2002년 4월 2~4일, St. Stephen Diocesan Center) 통하여 세계 속에 흩어진 한인 교회로서 다음 100년을 바라 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과 비전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하나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고백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와 해외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하는 지구촌에 해외한인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 속의 해외 한인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하게 하심을 믿는다.

우리의 비전

1. 이 땅에 이민자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교회 되기 바란다.
2. 예수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바란다.
3. 후손들에게 삶의 본을 통하여 한국인의 뿌리와 신앙의 유산을 전하기 원한다.
4.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령 안에서 함께 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란다.
5. 지구촌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생명의 존엄과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세계 교회와 협력하기 바란다.
6. 통일된 모국의 평화로운 나라를 그리며 이제까지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치유함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바란다.
7. 다음 세대가 세계 속에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바란다.
8.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응전하기 바란다.
9. 세대간에 교류교육과 협력을 통해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바란다.
10.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문화가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와 평등,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바란다.

참가교단과 참가자수:

미국장로교회, 미주한인장로교회, 미국개혁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 호주연합교회, 캐나다한인교회연합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재일대한기독교교회(77명 참가자일동)

說教



〈어머니主日〉

예수님과 어머니

— 1999년 11월 25일 —

李俊鶴 牧師 (下関教会)



東西古今을 통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母情과 자식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慕慕의 情은 人間이 품을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高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黃金萬能과 利己의 個人主義가 관을 치도록 만드는 物質文明의 發達과 外形의 華麗한 것만을 追求하도록 만들어가는 世上 풍조로 인해 사람들의 아름다운 情緒가 점점 말라가는 가운데, 이 母情마저도 잊아가 버리는 事例가 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自身의 醜態과

滿足を 追求하기 위해 子女을 돌보지 않거나 虐待하는 父母가 늘어가자 하면, 어머니를 慕慕와 사랑으로 따지지 않고, 父母가 子女들을 위해 犧牲하는 것 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父母를 미워하고 呪詛하는 子女들이 늘어가는 한탄스러운 世上을 우리는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어머니주의를 制定하고 지키는 것은 이같은 末世的인 世態에서 社會가 母情의 高貴함을 다 알지 못한다면, 어머니 福音書의 內容은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그 기록이 대단

히 貧弱한데다 ຈ잡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나사렛에서 부모님과 함께 에루살렘에 올라갔다가 迷え가 된 그를 父母들이 힘있게 찾아다니다가 聖殿에서 간신히 찾았을 때,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큰 심하며 너를 찾는 줄 아느냐?」고 責問하시는 어머니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

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하는 當答을 한 대담, 그리고 公堂에 들어간 후, 모친을 찾아 오신 어머니와 동행하는 수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

이냐? 하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兄弟요, 姉妹요, 母親이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복음사역중에는 언제나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으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情이 매우 貧弱하고 ຈ잡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돌보이는 마리아의 母情
한 사람의 女人에 불과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기르며 사랑한 마리아의 어머니로서의 生涯는 悽絶한 정도로 아픔이 동반된 것이었습니다. 男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아이를 배었기 때문에 시작된 苦痛은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救世主에 수반되었기 때문에 三年동

간 어머니라 불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全人類의 罪를 대신지고 人間最大의 苦痛인 十字架의 刑을 받고 죽어가 는 모습을 그 밑에까지 따라가 말없이 지켜보아야 하는 아픔까지 눈물겹게 감당한 聖母의 母情은 정말 위대하고 돌보이는 人類最大의 母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의 어머니께 대한 偉大한 사랑
하지만 十字架 위에서 보 여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慕慕의 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福音書는 예수님이 十字架 위에서 하신 말씀 일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의 한 말씀이 오늘 본 文에 수거되어 그 母親과 사랑하시는 弟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母親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弟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당시에서 全人類의 救贖主가 되셔야 하는 입장에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시지 못하고 당시의 情을 抑制해야 했던 아픔과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장 露骨적으로 表現하신 千金같은 한 말씀입니다. 公堂에 기간에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기에 人間인 어머니도 당시의 구속으로 救援받지 않으면 안 될 한 사람의 女子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人間의인 사랑과 慕慕의 情은 모든 人間들의 孝를 대표하기에 넘칠 만함 十字架의 苦痛 속에서 보여 주신 弟子에게 어머니를 당부하는 오늘날의 本文에서 완벽하게 나타난 것

總幹事活動日誌

會議

○海外韓人教會教育と牧會協議會
日時: 4月2日・5日
場所: ハワイ
参加: 總會代表6名
主題: 海外移民百周年を記念して

○總會宣道師・牧師・宣教師考試
日時: 4月8日
場所: 大阪KCC

○平和統一宣教師委員會會議
日時: 4月8日
場所: 大阪KCC

○常任委員會
日時: 4月9日
場所: 大阪教會

○エクロフ委員會會議
日時: 4月10日
場所: 東京總會

○東京總會神學校入學式
日時: 4月10日
場所: 東京總會

○JNAC日本委員會
日時: 4月11日
場所: JNAC事務所

○金泳鎮議員斷食闘爭一周年記念集會
日時: 4月13日
場所: 在日韓國YMCA

○關東地方教會役者研修會
日時: 4月14日
場所: 箱根東京教會修養館

○關東地方合同慕前禮拜
日時: 4月15日
場所: 富士靈園

○關東地方任職委員會
日時: 4月15日
場所: 東京教會

○七教團總務會議
日時: 4月17日
場所: ソウル

○全聖三牧師委任式と憤權七長老引退式
日時: 4月21日
場所: 布施教會

○日本キリスト教會との宣教師協力委員會
日時: 4月22日
場所: 日キ鶴見教會

○關東地方會第53回定期總會
日時: 4月29日
場所: 東京教會

○禮拜出席・說教
日時: 4月21日
場所: 東京新宿教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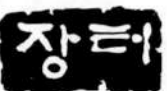
○姫路教會
日時: 4月21日
場所: 大阪教會(夕拝)

○大阪教會(夕拝)
日時: 4月21日
場所: 沖繩教會

○沖繩教會
日時: 4月28日

總會事務所からのお知らせ

- 總會事務所のホームページが5月15日に開設されます。アドレスは次の通りです。
www13.u-page.so-net.ne.jp/kb3/kccj/
- 6月10~11日は、職員研修会のため、總會事務所をお休みします。



韓国食品・書籍・CD・ビデオ

(株)韓国広場

新宿店: 東京都新宿区大久保1-17-7
TEL (03) 3232-5400
FAX (03) 3200-2949

代表取締役 金根熙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太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愛

取締役社長 李鍾善
(名古屋教会 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広島教会 中江洋一牧師委任

金信煥牧師の名譽牧師推戴も同時に



去る四月十四日、広島教会において、金信煥牧師名譽牧師推戴式と中江洋一牧師委任式が、百七十五名という多数の出席者が見守るなか盛大に行われた。

まず礼拝を、広島教会臨時堂会長の辛鐘国牧師の司会のもと、徐源亨牧師の祈り、李相睦長老の聖書朗読、広島教会の讃美、李聖雨牧師による「思いの方向」と題する説教と祈りが捧げられた。

つづいて、金信煥牧師名譽牧師推戴式が西部地方会長の金徳化牧師の司式のもと執行され、引き続き、中江洋一牧師委任式が同じく地方会長の司式のもと行わ

東京教会서 세長老將立式

李惠媛、金成秀、白勝男各長老가 새로이



將立을 받은 (左로부터) 白勝男、金成秀、李惠媛 長老

四月二十一日(主日)午後四時に東京教会에서李惠媛、金成秀、白勝男長老將立式이 恩惠中에 마쳤다。金君植牧師의 司會로 韓聖炫牧師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라는 題目의 説教과 地方會長인金柄鎬牧師의 司式으로 長老按手式을 挙行하였다。勸勉으로 李在隆牧師、祝辭에 慶重重牧師、祝禱에 姜榮一牧師가 担当하였다。 새로 長老將立을 받은李惠媛長老는 本國京畿道靑丘에서 出生하여 乳兒洗禮를 받고一九九四年東京教会의 勸士로 就任、二〇〇二年二月에 長老로 選出되

れ、中江洋一牧師が広島教会に委任されたことが宣言された。つづいて、張春根牧師(岡山教会)による委任牧師への勸勉、権寧国牧師(神戸教会)による信徒への勸勉があり、祝辞は李炳球総会長、李鍾国長老(神戸東部教会、日基教団西中国教区広島西分区分長の西嶋佳弘牧師、在日本大韓民国民団広島地方本部長の朴昭勝氏の順で述べられ

た。それに答えて金信煥牧師と中江洋一牧師による答辞があり、名譽牧師推戴式と牧師委任式が終了した。その後、一部の祝賀会があり、広島教会が用意した晩餐を楽しみながら、主にある豊かな愛による交わりと喜びを分かちあった。今回、名譽牧師として推戴された金信煥牧師は、広島教会に委任されてから三十七年間、牧会だけではな

く李善愛師母と共に原爆被爆者のためにもあらゆる面において身を投げ出し奉仕をした。中江洋一牧師は、一九六二年生れの長崎出身。近畿大学工学部、神戸改革派神学校を経て福岡中央教会、折尾教会で牧会経験を重ねてきた。家族は、師母の黄美和、長男の洋和がいる。

(報告：徐源亨牧師)

関東地方会

復活節大聖歌大会開催

毎年参加教会が 많아져 盛況이 이루어

船橋教会가 재작년에 이어 最優秀賞

지난三月三十一日(主日)에 關東地方會에서 主催하는 復活節大聖歌大會가 盛況裡에 開催되었다。昨년에 이어 올해에도 主催場所가 된東京教会에는 參加者 뿐만 아

니라 그들을 聲援하는 많은 應援團들도 함께 모여 뜨거운 熱氣를 뿜어내었다(約五百名參加)。毎年 參加하는 팀이 많아지고 徹底한 準備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準備속에 이루어지고 있

은 應援을 볼 때 이 復活節大聖歌大會는 어느 대회에 못지 않는 規模와 實力을 가지고 있음을 自負할 수 있겠다。올해에도 十九教會가 參席하여 各의 特徴을 가

지고 熱心히 準備한 讚揚을 자아내기도 했다。또한 을 드렸다。審査委員의 審査 속에 끝까지 優勝을 차지한 船橋教會는 最優秀賞을 받았다。審査結果를 보면 最優秀賞에는 船橋教會、二등에는 東京教會、三등에는 つくば東京教會와 神奈川平和伝道所、奨勵賞에는 四ヶ教會에게 돌아갔다。特別히 올해의 最優秀賞으로 빛나는 트로피가 授与되어 더욱 부러운

다。(報告：趙重來牧師)



最優秀賞を受賞した船橋教会聖歌隊

布施教会

全聖三牧師の委任式を挙行

慎権七長老隱退式も同時に



去る四月二十一日、関西地方会主催により、全聖三牧師の委任式が布施教会にて執行された。

鄭然元牧師の司会により礼拝が捧げられ、布施教会において長く牧会された李昌雨牧師より「同じ思いと」(「ビリーブ」2・1・5)という題目で説教があった。

牧師委任式は、関西地方会会長である金武士牧師の司式のもと、誓約、祈禱、李炳球牧師と朴珍列牧師が

つづいて、慎権七長老隱退式が、就任後の初めての仕事として全聖三牧師の司式によって行われ、祈禱と宣布の後、布施教会において十四年間視察長老として奉仕された功をたたえ、感謝牌が贈られた。それぞれ

の式の後、勸勉を李海春牧師と趙仁衡長老が、祝辞を李炳球牧師と朴珍列牧師が

述べ、向井希夫牧師(日本基督教団大阪聖和教会)が祝辞を行った。また、特別演奏として大阪教会から大阪グロリア吹奏楽団の有志による演奏も行われ、祝いの雰囲気を一層盛り上げた。

当日、小雨がまじる天候の中、予想を上回り二百名以上の方々が祝福に來られ、布施教会の信徒はもちろんのこと、來られた方々の中で礼拝堂に入れない人々がいたほどであった。そのような多くの方々との教会の新たな歩みを共に祝えるこ

とに喜びを覚えて、これからますます神の国の拡大の働きに励んでいきたいと布施教会信徒一同が心新たに、式を終えることができた。

全聖三牧師は、一九五七年大阪生まれ。関西聖書神学校を卒業後、大阪北部教会にて講道師、副牧師として仕えた後、大阪教会で副牧師として奉仕した。

家族は、威美羅師母と全聖一(長男)、満喜(長女)、智恵(次女)の一男二女がいる。

(報告：金順子伝道師)

聖ルカ歯科医院

平日：午前9時～午後1時、午後3時～午後7時
土曜：午前9時～正午
休診：火曜日、日曜日、祝日
診療科目：一般歯科、小児歯科

*留学生は特別優待します。

院長 関 彬 夫 (東京日暮里教会執事)

東京都墨田区太平3-8-2 東和ビル1F

TEL 03-5819-8257

FAX 03-5819-8267

JR錦糸町駅北口徒歩5分

CORAL WATER (珊瑚の水)

ミネラルウォーター、カルシウム
冷温水機直輸入
冷温水をワンタッチで便利に。

(有) I.C.C. 東京

代表 表 京 先

(東京ベテスタ教会 執事)

〒123-0845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5-4-9

TEL 03-3880-3159 FAX 03-3880-4404

愛三グループ

愛三産業株式会社 済州カントリー倶楽部

代表取締役社長 白 一 善

本社 東京都墨田区江東橋4-6-4 TEL (03) 3633-7477(代)
済州C・C 韓国済州市寧坪洞2238-2 TEL (064) 702-0451(代)
ソウル事務所 韓国ソウル特別市鍾路区内需洞167 TEL (02) 739-3327(代)

